

# “금강대 졸업생 군종사관후보생 인정돼야”

### 천태종, 국방부에 군종정책 형평성 문제제기

천태종이 국방부의 군종정책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3년간 천태종립 금강대 학생들의 군종파견을 추진해온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조계종과의 협의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초강경 수를 띄운 것.

천태종은 합당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도 강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천태종이 국방부에 보낸 질의서에 10월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9월 9일자로 국방부 장관에게 ‘군종정책 형평성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며 “군종사관후보생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금강대에 선발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질의서를 공개했다.

천태종이 국방부에 보낸 질의서에 따르면 “한국불교가 통불교인 만큼 조계종이 주장하는 양종단간 교리 및 수행방법 종교의식의 차이가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현행 군승단의 의식과 복식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만큼 금강대가 군종장교 운영학교로 지정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2년 11월 국회에서 군인사법과 병역법이 개정돼 사실상 모든 종교에 군종장교 진출의 문호가

열렸음에도 조계종에 동의를 구한 뒤 합의서 가져오라고 요구한 국방부에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천태종은 “조계종이 모자라는 인원을 채우기 위해 일반대학 출신 승려를 군종장교로 임관하는 편법 군종파견을 중단토록 조치해달라”고 국방부에 요구했다.

병역법시행령에 따르면 군종사관 후보생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신학대학, 불교대학이나 그밖에 성직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28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지난 1월 천태종에 보낸 공문을 통해 “조계종단에서 교리 및 의식, 행사의 차이를 들어 천태종의 군종장교 운영중단 지령에 동의할 수 없다는 회신을 했다”며 양 종단 대표자의 서명날인이 들어간 합의문을 작성하여 제출해달라고 통보한 바 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전해준 기획호법과장은 “현재 군종파견을 희망하는 각 종단과 협의체 구성 대책을 마련하는 등 다같이 가는 길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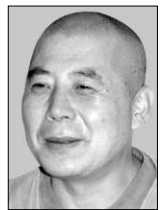
조계종 제31대 총무원장 법장 대종사의 49재가 10월 27일 조계사에서 2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고영배 기자

## 법상종 총무원장 해월 스님 재선출

법상종 13대 총무원장에 현 총무원장 해월(사진) 스님이 재선출됐다. 법상종은 10월 21일 평택 유가사에서 중앙총회를 개최하고 해월 스님을 만장일치로 제13대 총무원장에 재선출했다. 총무원장 취임일은 11월 13일 오전 10시 송탄 이충문화체육관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한편 법상종은 이날 립범 립포체의 마정수기 친견법회와 축하공연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031)653-1250

김원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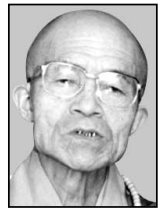
## 태고종 승정 벽산 스님 입적 10월25일 다천사에서 다비

태고종 승정 벽산(사진) 스님이 10월 23일 다천사에서 입적했다. 세수 84세 법랍 70세.

1922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난 벽산 스님은 1936년에 부안 내소사에서 해인 선사를 은사로 동진출가한 이래 금강산 유점사, 양산 통도사 등의 강원도 선방에서 공부했다.

이후 세 차례나 태고종 전북교구 총무원장을 맡았고, 중앙총회 의장도 두차례에 걸쳐 역임했다. 다비식은 25일 다천사에서 열렸다.

김원우 기자



## ■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선거-후보들 어떤 공약 내놨나?

# ‘안정과 화합’ 한목소리...교구권한 강화에도 무게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제시되는 ‘공약’은 ‘실현과제’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한다. 조직이나 단체가 장단기적으로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표를 던졌던 후보자들의 공약도 현 상황에서 조계종이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관, 정연, 월서, 대우, 각명, 장주 스님 등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공약은 종단 안정·교구권한 강화·비구니스님 중흥 등. 최근 들어 부쩍 강조되고 있는 종단 이슈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지난 몇 차례의 선거에서 심각한 후유증을 겪어오던 ‘안정과 화합’은 후보자들의 공약 1순위다. 지관 스님은 “종단의 화합과 안정은 종단 모든 구성원의 바램”이라고 강조했으며 정연 스님 또한 “안정과 화합은 백번을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교구 자치권한 강화도 주요 공약 중 하나. 인사와 재정권을 교구에 실질적으로 이양해 명실상부한 교구자치제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세 차례나 태고종 전북교구 총무원장을 맡았고, 중앙총회 의장도 두차례에 걸쳐 역임했다. 다비식은 25일 다천사에서 열렸다.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선거 투표일인 10월 31일 조계사에서 만난 입후보자들. 가운데가 당선자 지관 스님. 왼쪽으로 장주·대우 스님, 오른쪽으로 정연·각명 스님.

## 환경·대북교류·포교 등 전분야 언급 비구니스님 종단 참여 확대도 약속

대표가 사찰 운영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일 법장 스님 재임 당시 처음 이뤄졌던 비구니스님들의 종단 참여 활성화 공약도 눈에 띈다.

지관 스님은 비구니부 신설을, 정연 스님은 수행과 포교 지원, 월서 스님은 모든 분야 문화 개방, 각명 스님은 수도권 1곳과 지역 2곳의 비구니 사찰을 교구본사로 승

격시키겠다고 역설했다. 이외에 각 후보자의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지관 스님은 △사비의 나눔운동 전개 및 불교시민사회센터 설립 △중앙총무기관 순환 근무제 도입 △국제 불교 네트워크 구성 등을, 정연 스님은 △국제간 화선센터 설립 △생태 수행 등 특성화 사찰 육성 △복지시설 종합 관리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공약들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며 “진정한 종족 대결을 위해서는 공약을 실질적으로 상호 검증하는 자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에 대해 청정선거실현 승가운동본부 정책국장 원병은 스님은 “각 후보가 제시한 공약들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며 “진정한 종족 대결을 위해서는 공약을 실질적으로 상호 검증하는 자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49재에서 원로회의 부의장 보성 스님은 “상생의 원력이 원용종단이요 동체대비에 이익공생이요다. 불교 세계화에 한중일 유대를 이끌고 이와 사에 결립 없고 마음과 경계가 하나라다. 법장 대종사에! 이제 빛과 어둠 서로 떨어지지 않음을 부촉하노니 결립 없이 생사에 두려움 없도록”이라고 법어를 내렸다.

이러한 공약들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며 “진정한 종족 대결을 위해서는 공약을 실질적으로 상호 검증하는 자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49재에는 원로위원 보성 도원 녹원 원명 천은 동춘 지관 조우 스님 등과 중앙총회회장 법등, 교육원장 청화, 포교원장 도영 스님, 운산 태고종 총무원장, 회정 진각종 통리원장,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이명박 서울시장, 황우석 서울대 교수 등 2천여 대중이 참석했다. 남동우 기자

이러한 공약들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며 “진정한 종족 대결을 위해서는 공약을 실질적으로 상호 검증하는 자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공약들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며 “진정한 종족 대결을 위해서는 공약을 실질적으로 상호 검증하는 자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공약들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며 “진정한 종족 대결을 위해서는 공약을 실질적으로 상호 검증하는 자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공약들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며 “진정한 종족 대결을 위해서는 공약을 실질적으로 상호 검증하는 자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공약들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며 “진정한 종족 대결을 위해서는 공약을 실질적으로 상호 검증하는 자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금강대 김유혁총장 해임 직무대행 조성환 교학처장

학교법인 금강대학교(이사장 도용)는 10월 4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김유혁 총장을 전격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진흥동 기획처장은 “해임의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현재 금강대는 교학처장 조성환 교수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

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유혁 前 총장은 10월 25일 전화 통화에서 “재단 차원에서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안다”며 “학교의 장기 발전계획과 관련, 재단과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대답했다.

금강대 한 관계자는 “2학기부터 금강대가 추진한 학사제도의 개편과 관련해 총장과 재단의 갈등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조용수 기자

##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털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6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FAX (02)737-0697 온라인서점 예시마론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연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 大韓佛敎 法相宗



## 제13대 총무원장 해월종사 취임 및 립범 립포체 마정수기 친견법회



제13대 총무원장 해월스님

귀의삼보 하옵습니다.

한국불교의 미래를 준비하는

대한불교법상종은 제13대 총무원

장 해월스님의 취임식과 립범 립포

체 마정수기친견법회를 통해 종단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각 사암 주지스님, 법사, 포교사,

신도분들께서는 수희 동참하시어 법좌

를 빛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 종도님들께 제물보살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스님들께서는 가사, 장삼을 펴히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05년(불기 2549) 11월 13일(음, 10월12일) 오전 11시

■ 장소: 송탄 이충 문화 실내체육관

■ 행사내용

- 1부: 총무원장 취임식 (오전 11시)
- 2부: 립범 립포체 마정수기, 국제보살계 법회 (오후 2시 - 오후 4시)
- 3부: 축하공연 (오후 4시 - 오후 5시)

• 축하공연 세부내용

- 총무원장님 초청인사, 규경부장 축하노래
- 남진: 나에게 애인이 있다면, 가슴아프게, 저리개, 등지 등
- 이태원: 솔개, 고니, 타조 등
- 김혜연: 서울대전대구부산 짝고, 유일한 사랑, 간큰 남자 매들리, 어찌나, 유리구두, 남행열차, 아파트 매들리 등

■ 문의: 총무원 (031)653-1250 ~ 1 / Fax (031)653-1253  
경기 평택시 세교동 569-8 구운빌딩 4층

# 大韓佛敎 法相宗 總務院長 就任法會準備委員長 道一 합장